

□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2)

창의와 결속으로 성장하는 정보과학회

고려대학교 서남원*

1. 20세기 학문의 총아는 정보과학

아마도 후세에 이르러 학문의 역사를 돌아켜 보는 것이라면 20세기를 가리켜, 가장 빛나는 융성을 기록한 시대로 평가를 내릴 것이 분명하다. 물론, 고대에는 인간/우주에 관한 철학이 착상이 되었고, 중대에 와서는 인간의 모든 학문적 과제에 체계적인 정립이 형성되는 등의 위대한 학문적 공헌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의 학문은 인류의 문화와 문명, 즉 인간의 삶의 양식에 충격적이면서도 막중한 전환을 실현하는 데에 실증적 기여를 함으로써, 어느 시대보다도 그 위대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역사가 형성되는 세계가 이제는 ‘지구촌’으로 탈바꿈이 되었음이 확실한데, 이는 금세기 학문의 작용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대미문의 인간 세계의 전환은 학문의 온 분야에 걸친 눈부신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분야를 지목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의 출범과 그 뒷받침에 따르는 성과라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인간의 제반활동과 그리고 학술적 연구에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는 각종 정보의 확보, 처리 및 활용 등에 정보과학의 창출과 발전으로 신기원이 이루어진 까닭이라는 것이다.

2. 정보과학의 가능성

인간이 창출한 현대적 정보과학의 출발은 20세기 중반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컴퓨터의 실용화가 성공함으로써 그 막이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보과학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공학적 문제가 일차적으로 학문적 과제로 등장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컴퓨터의 충격은 보다 포괄적인 학술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인식이 되었다.

그리하여 컴퓨터를 주제로 하는 학술연구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프로그래밍, EDPS, 전산학(電算學) 등의 개념이 다양하게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얼마 후에는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라는 개념으로 발전적 전환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다수의 학자가 수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 학문은 CS, OS, SE, MIS, AI, CG 등등 얼마든지 다양하고 많은 새로운 개념과 분야로 확충을 보이는 것이므로, 오늘날에 그 전모를 포함하려면 오직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으로 지칭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3. 국내 정보과학 연구 모임의 발족

국내에 최초로 컴퓨터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60년대 후반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 미국에서 컴퓨터를 접한 학자가 귀국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정부의 통계를 다루는 기구에서 초기적인 전자계산 장치를 도입하기 시작한 무렵이 된다. 그리하여 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우

*중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2대 회장

리 사회에서도 컴퓨터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위해서 학술적 기구를 발족시켜야 하는 계기가 뚜렷 익은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와 관련된 학회를 발족시키는 문제는 황무지에서 건축물을 축성하는 일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무엇보다도 컴퓨터 문제에 관심을 둔 학자 및 전문가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러한 인사들의 규합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었던 사회에 대해서 그러한 시대의 도래가 긴박하였음을 알리는 홍보를 펼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예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컴퓨터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요구가 된다. 그리하여 1968년 2월, 국내 최초의 컴퓨터 학술행사가 성균관대학교 소강당에서 진행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의 정보과학을 빛내고 있는 상당수의 학자 및 인사들의 참석을 본 것인데, 상견례의 성격을 지닌 것만으로도 학술적 모임의 디딤돌로 평가될 수가 있을 것이다.

70년대 초에 들어서자 대학, 연구소, 기업체, 정부기관 등에서 각자 컴퓨터 관련 사업을 창시하려는 인사들의 접촉이 활발하여 졌으며, 드디어 1973년 3월 3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Korea Information Science Society)의 발족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순수하게도 국내 인사들만의 헌신적이며 예지가 발휘된 협력의 결과인 것이다(창립 인사명단: “한국정보과학회 15년사” p.39 참조).

학회의 발족에는 몇 가지 초석을 다지는 중요 사항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첫째, 학회의 공식명칭이다. 당시 선진사회의 예를 보면, 정보처리라는 용어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학회 창립위원들은 모두에서 고찰한 컴퓨터 학문의 영역에 대한 방대한 가능성을 감안하여 창립 초부터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이라는 개념/용어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는 오늘날에 국제적으로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학회 명칭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회는 단순한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님으로 몇 가지 이념적인 과제의 해

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첫째, 본 학회의 발족 매개가 된 컴퓨터의 특성상 참여자는 다양한 사회분야의 출신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인사들간에 결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이념, 또는 학회의 항구적 지표를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간결하게 “컴퓨터와 시스템스”라는 어구를 학회의 ‘로고’로 설정하는 방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본 학회의 현대성을 천명하기 위해서 computer라는 술어는 오로지 음성적으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단안이 내려진 것이다.

이와 같은 창립원칙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회장의 선출에는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보과학은 금세기 후반에서야 나타난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따라서 참여하는 인사 사이에는 탁월한 기성 대가가 있을 수가 없었고, 또한 재자관계나 선후배관계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였다. 그러나 학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모든 창립위원들의 열의는 당시 우리 과학계의 영도 기관으로 자타가 공인된 KIST의 소장 한상준 박사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이로써 KISS의 공익성을 더욱 빛나게 되었다.

4. KISS 초기 연구활동의 진흥

언급의 필요도 없이 학회의 사명은 회원간에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과학은 출발 당시 연구에 대한 어떠한 방향이나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연구를 위한 자료라면 솔직히 말하여 메이커들이 공급하는 상업용 인쇄물과 그리고 전기공학, 수학, 기호 논리학 등에 속하는 참고서적뿐이었다.

따라서 KISS의 연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 연구기구와의 연계를 도모하여 최신 논문과 문헌을 입수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연구행사에 참가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미 국내에 진출한 메이커들에 의존하는 데에 만족해야 하는 유혹을 탈피하는 문제는 KISS의 미래를 위하여 절대로 바람직한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해외 학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에 접하고 있었던 회원들의 의견을 집결하여 발족한 지 4년 후에는 오늘날 확고한 명성을 정립하고 있는 IFIP에 가입하는 절차를 마칠 수가 있었다. 이 연구단체는 본시 미국에서 출발을 보았지만 스위스에 본부를 두는 명실공히 완벽한 국제기관으로, 한 국가에서 한 개소의 연구단체에만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5. KISS의 성장에서 얻어지는 교훈

KISS는 발족한 지 20여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경이적인 발전을 실현하였다. 이는 언급의 필요도 없이, 10여대에 이르는 회장단과 집행간부들의 일사불란한 봉사가 이룩한 결실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정보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 탓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정보산업의 출현과 비약은 비롯하여 정보교육의 육성과 확충,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의한 전산화의 촉진, 그리고 정부의 정보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강화 등이 따른 것이라 하지만, 그래도 KISS의 성장은 국내의 다른 어

느 학회에서 그 예를 찾을만큼 자력적인 성장이다.

그러면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KISS가 언제나 미래에 시각을 설정하고, '창의와 결속'을 통해서 학술적 활동을 원만히 전개해 온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인을 하면, 정보과학의 요결인 '시스템'(즐거와 가지)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학술활동의 전개와 조직기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까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KISS는 지금까지 지켜 온 창립과 성장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 것이라면 앞날에도 더욱 높은 수준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물론 연구시각에 여하한 창의적 전환을 이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제기되는 것이지만, 이는 그 시대의 현역 회원들이 슬기롭게 창의적 전환을 도모해 낼 것이 의심되지를 않는다. 다만 현재로서는 'Humanware'에 보다 유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리라는 제언을 끝으로 남기고 싶을 뿐이다.

● HCI '97 학술대회 ●

- 일 자 : 1997년 2월 18~20일
- 장 소 : 용평 피닉스파크
- 주 최 : HCI연구회
- 문 의 처 :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과 이만재 교수
T. 02-710-9379